

설화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연희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마고할미> 텍스트 선정과 한국어교육 방향
3.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내용
 - 3.1. <마고할미>에 드러난 언어교육 요소
 - 3.2. <마고할미>에 드러난 문화적 요소
 - 3.3. <마고할미>와 <반고>의 상호문화교육
4.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 제시
 - 4.1.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 4.2. 여성신의 변화 및 <반고>와의 비교 교육 방안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인 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화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설화는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다. <마고할미>는 한국 설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태초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대지모신 성격을 가진 여성 거인이다. 이는 한국의 여성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고할미>의 교육적 효용성은 언어적, 문화적, 상호문화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학습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강조한다. 중국어의 의성어·의태어 사용은 뚜렷하지 않아 중국인 학습자는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마고할미>에 드러나는 여성신의 변모와 여성의 위상 변화를 다룬다. 한국의 설화에는 여신이 독립적으로 전승되는 사례가 드물다. <마고할미>는 여신의 창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 여성의 위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셋째, 상호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설화 <마고할미>와 중국의 설화 <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 간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제어| 설화, 마고할미, 반고, 한국어교육, 상호문화교육

1. 서론

이 논문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화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중국 설화 <반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마고할미>의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설화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징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설화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언어적 층위, 문화적 층위, 상상력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째, 언어적 층위에서는 설화가 문화적 배경과

1) 본 연구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연구 성과를 ‘언어적 층위’, ‘문화적 층위’, 그리고 ‘상상력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설화 내에서 언어, 문화, 그리고 상상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다. 지난 연구들(구선희 외, 2008; 김영주, 2008; 신정아, 2020; 안미영, 2008; 양지선, 2009; 이은희, 2016; 임재해, 1998; 신선희, 2009; 박현숙, 2021)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러한 세 가지 층위가 한국어와 문화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포함하여, 학습자는 한국어의 표현 방식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특히 설화 내의 특정한 어휘와 표현은 학습자가 문맥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한다. (구선희 외, 2008; 김영주, 2008; 신정아, 2020) 둘째, 문화적 층위에서 설화는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설화에는 한국 사회와 문화적 가치가 녹아 있어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한국과 모국 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안미영, 2008; 양지선, 2009; 이은희, 2016) 셋째,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촉진한다. 설화는 자주 함축적인 요소를 포함하므로, 학습자는 이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설화의 다양한 요소들은 학습자의 언어적 표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 (임재해, 1998; 신선희, 2009; 박현숙, 2021)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에 설화를 활용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설화를 활용한 학습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여 언어 표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동기도 높일 수 있다.²⁾

하지만 한국의 대학교 언어교육기관 한국어교재를 살펴보면 한국 고전문학의 비중이 작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설화의 수록 비율은 더욱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³⁾ 또 설화 장르에서도 <단군신화>가 가장 많이 수

2) 김승희(2016:273)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 인식과 문화 인식 등 한민족의 정신세계 원형과 본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인의 보편성, 민족성,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3) 차이후이(2014:12-18)에서는 주요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된 교재들을 중심으로, 교재에 포함된 문학 장르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교재를 선별하여, 현재의 문학 교육 상황을 파악하였다. 한국어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교재를 선택하여 문학교육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설화 장르의 작품 수는 더욱 적다.

록되어 있다.⁴⁾ 그러나, 고대 인간의 사유와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들, 우주의 탄생, 신 또는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의 원시적 역사나 설화 등이 더욱 포괄적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설화의 하위 갈래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⁵⁾ <마고할미>는 한국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태초에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키는 대지모신 성격을 가진 여성거인이다.⁶⁾ 본명은 마고이며 할미는 존칭에 해당한다. 자신의 이름이 있고 전국적으로 구비 전승되는 <마고할미>는 한국 여성과 여성문화에 대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편복이 비교적 짧고, 창세신화이러서 학습자에게 재미와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화와 같은 문학 장르는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 역사 및 사회적 배경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호문화적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용한 교육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간의 상호 작용과 그로 인한 영향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다.⁷⁾ 그러므로 한국의 창세신화와 중국의 창세신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내

4) 차이후이(2014:17-18)에서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과정 교재를 조사한 결과, 교재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본 논문에서의 '설화'는 전통적인 한국의 구전 이야기를 의미하며 신화, 전설, 민담을 포함한다. '신화'는 '설화'의 하위 분류로, 신과 우주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칭한다. 참고 문헌 중 일부 자료에서 <마고할미>를 '신화'로 설명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인용할 때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 강진옥(1993:14)에서는 할머니라는 용어가 여성 신성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단어 자체에 신화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할머니'는 '큰'이라는 의미의 '한'과 기본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어머니'가 결합된 단어로, '대모(大母, the great mother)'라는 의미를 갖는다.

7) 유네스코(2006)에서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라는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상호문화교육 지침(<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47878>)을 정리하면 상호문화교육의 대원칙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문화적 존중. 둘째, 사회 참여를 위한 능력 강화. 셋째, 다양한 그룹 간의 연대 및 존중 강조.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최종 총괄 목표에서도 4급 수준은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를 목표로 하

용과 방법을 설화 <마고할미>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국 설화 <반고>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마고할미>의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2. <마고할미> 텍스트 선정과 한국어교육 방향

설화는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문학 작품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설화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언어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⁹⁾

또한, 설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¹⁰⁾ 이는 세계 문학 곳곳에서 공통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작품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설화 <마고할미>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마고할미>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으나, 학습자가 부담 없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미래엔 『초등학교 음악 5』에서 나온 텍스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마고할미> 설화는 한국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미래엔 『초등학교 음악 5』는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미래엔 『초등학교 음악 5』 <마고할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였고 고급은 “한국의 다양한 행동문화, 성취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급 학습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 9) 정송희(2022:52-53)에서는 설화는 서사구조가 단순하며 간결한 문장으로 사용되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10) 이은자(2017:304)에서는 신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들은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의 보편적 특성을 활용하여 각 민족의 신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주 먼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여 어둠 속을 기어 다녔지. 그때 마고할미라는 거인이 천둥처럼 드르렁 코를 골면서 긴 잠을 자고 있었어. 코 고는 소리에 하늘에선 별이 쏟아지고, 땅은 짹짹 갈라져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댔어. 마고할미가 잠에서 깨 기지개를 쳐자 우지직우지직 하늘이 밀려 올라갔단다. 하늘이 높이 밀려나 해와 달이 어둠을 몰아내고, 오색구름이 피어나 큰비를 내렸단다. 땅에서는 높은 산이 쑥쑥 솟아올랐는데 그건 마고할미의 무릎이었던단다. 마고할미는 킁킁 울으며 팔팔팔 오줌을 누었어. 갑자기 오줌 줄기가 강물처럼 밀려와 사람들은 독을 쌓았어. 마고할미도 돕기 위해 성큼성큼 바다를 건너 독을 쌓았지. 그러다 지쳐 한라산을 베고 벌렁 드러누우니 마고할미의 오른발은 동해에 침병, 왼발을 서해에 침병 잠겨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덮쳐 오는 파도를 피해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 마고할미가 땅을 손가락으로 죽죽 긁어내리자 땅이 파인 곳은 골짜기, 흙이 쌓인 곳은 산이 되었고, 한숨을 내쉬자 북쪽의 산과 언덕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 만주 벌판은 그렇게 생겨났지. 배가 고파진 마고할미는 흙, 나무, 바위 등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지. 그러나 탈이 난 마고할미가 입으로 토해 낸 것은 백두산, 뒤로 쏟아 낸 것은 태백산맥이 되었어. 하늘에 닿을 만큼 키가 크고 산도 번쩍 들어 옮길 만큼 힘이 센 마고할미가 우리 산과 들, 강, 바다를 만들었다.¹¹⁾”

이 논문에서는 <마고할미>의 한국어교육을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의성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로 정의되고 있다.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풍부하며,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뛰어난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어의 의성어·의태어 수량도 적고 사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¹²⁾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³⁾

11) 정기법 외(2022: 42-43). 초등학교 음악5, 미래엔.

12) 赵绒绒(2020:1-2)에서는 《現代漢語詞典/현대한어사전》(第7版/제7판)에는 의성어는 총 218개 있다.

13) 배도용(2013:160)에서는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가 언어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는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마고할미>를 중심으로 여성신의 변모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위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허남춘(2013) 연구에 따르면,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이전의 여성 영웅에 관한 전승은 대체로 파괴되었고, 여성 영웅의 이야기는 남성 영웅의 이야기에 흡수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어로 전승되는 설화 중에서 자신의 고유한 이름과 서사를 가진 여성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고할미>는 여성신격을 가진 한국의 세계를 창조하며, 생산과 풍요를 담당하는 이미지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¹⁴⁾ 이는 여성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문화교육에서는 단순히 한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 상호문화교육의 출발점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넘어서, 그 문화의 내적 가치와 의미를 함께 파악하게 해준다. 그 결과 우리가 자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선입견 없는 시각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설화 <마고할미>와 중국 설화 <반고>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호문화교육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용으로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난다. 의성어나 의태어가 자신의 모국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까다로운 어휘로 인식해 사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들 어휘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14) 강진욱(1993:21)에서는 마고할미는 생산과 풍요에 관한 신적인 특성을 소유가 확인될 수 있다.

15) Holzbrecher(2004:14-15)에서는 상호 문화 교육의 기점은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인 거리 두기'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타자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내용

3.1. <마고할미>에 드러난 언어교육 요소

한국 문학 중에서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작품 속의 인물과 동일시하게 하고 작품 속 인물의 느낌 또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뉴스, 신문, 잡지, 드라마 등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성어·의태어의 수도 상당히 많다.¹⁶⁾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풍부한 의성어·의태어에 비해 중국어의 경우에는 그 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의 연구도 미비하다. 특히 의태어의 연구는 더욱 드물다. 중국 『現代漢語詞典』¹⁷⁾에서는 의성어를 “사물의 소리를 모방하는 단어, 象声词(상성사)라고도 한다”라고 정의하였지만, 의태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성어·의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성어·의태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기 위해 모음교체, 자음교체, 반복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겠다. 이 방안은 학습자들이 재미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성어·의태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 사용빈도 수가 높은 것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장학련(2012)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의태어 선전 목록과 김광해(2003)의 등급별 의성어·의태어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의성어·의태어의 연구대상을 <마고할미>원문에 나오는 드르렁, 짹짹, 성큼성큼, 길길, 팔팔, 출렁출렁, 성큼성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¹⁸⁾

16) 박동근(2019:188)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록된 표준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수는 5,683개로 확인되며, 이 중 의태어는 3,441개, 의성어는 962개,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두 포함하는 항목은 1,280개로 집계되었다.

17) 『現代漢語詞典』第6版 2014,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18) 본고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음교체, 모음교체, 반

모음교체에 대한 연구에서 고영진(2009)은 모음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¹⁹⁾ 중국에도 음양오행설²⁰⁾이 있으므로 중국 학습자는 이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1>은 원문에서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모음교체를 통한 의성어·의태어이다.

<표 1> 원문에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모음교체를 통한 의성어·의태어

		원문	모음교체	
1	드르렁	“매우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	다르랑	“조금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
2	쩍쩍	“자꾸 크게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짜짜	“자꾸 세게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	성큼 성큼	“다리를 잇따라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	상큼 상큼	“다리를 잇따라 가볍게 높이 들어 떼어 놓는 모양.”

1) ‘드르렁’과 ‘다르랑’은 각각 코를 고는 소리를 의미한다. ‘드르렁’은 무겁고 느리며 큰 소리를 상징하는 음성 모음을 사용하는 반면, ‘다르랑’은 가볍고 빠르며 작은 소리를 상징하는 양성 모음을 사용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각각의 단어가 표현하는 소리의 강도와 크기를 반영한다.

2) ‘쩍쩍’과 ‘짜짜’은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쩍쩍’은 크게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를 의미하는 음성 모음을 사용하며, ‘짜짜’은 세게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를 의미하는 양성 모음을 사용한다.

3) ‘성큼성큼’은 다리를 연속적으로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습을 의미하며, 이때의 ‘성’은 음성 모음으로서 무거움, 느림, 그리고 큰 느낌을 주는 특성을 표현한다. 반면에 ‘상큼상큼’은 다리를 연속적으로 가볍게 높이 들어 떼어 놓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때의 ‘상’은 양성 모음으로서 가볍

복과 같은 언어적 규칙성을 통해 새로운 의성어·의태어를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19) 고영진(2009:37,43-44)에서는 양성모음을 ‘ㄱ, ㄲ, ㄷ, ㄸ’ 음성모음을 ‘ㄷ, ㅌ, ㄱ, ㅋ’ 중성모음을 ‘ㅣ’로 정하였다.

20) 고영진(2009:37)에서는 음양이라는 개념은 실재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양”은 활동적이고 밝은 특성을, “음”은 정지적이고 어두운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로 ‘밤, 여자, 물’ 등은 음의 속성을, ‘낮, 남자, 불’ 등은 양의 속성을 가진다고 분류하였습니다.

고 빠르며 작은 느낌을 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모음 체계는 의미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성 모음은 무거움, 느낌과 큰 느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ㅣ’와 ‘ㅓ’는 음성 모음으로서 무겁고 느리며 큰 느낌을 준다. 반면에 양성 모음은 가벼움, 빠름과 작은 느낌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ㅏ’와 ‘ㅑ’는 양성 모음으로서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준다.

자음교체는 정인승(1986)의 자음 가세 법칙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자음의 가세 변화는 어감의 강도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들 사이에서도 가세적 차이를 통해 감각적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거센 어감 > 센 어감 > 예사 어감의 순서로 어감이 변화하며, 다음의 <표 2>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표 2> 정인승(1986)의 자음 가세 법칙

예사 어감	ㄱ	ㄷ	ㅂ	ㅅ	ㅈ	ㄱ	ㅇ
센 어감	ㄲ	ㄸ	ㅃ	ㅆ	ㅉ	ㄲ	
거센 어감	ㅋ	ㅌ	ㅍ		ㅊ		ㅎ

아래 <표 3>은 원문에서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자음교체를 통한 의성어·의태어이다.

<표 3> 원문에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자음교체를 통한 의성어·의태어

		원문	자음교체
4	낄낄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입 속으로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낄낄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입 속으로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낄낄’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5	팔팔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 <‘팔팔’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팔팔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

		원문	자음교체	
6	출렁 출렁	“물 따위가 자꾸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줄렁줄렁’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줄렁 줄렁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4) ‘낄낄’과 ‘킬킬’은 억지로 참은 웃음소리 혹은 그런 모양을 지칭한다. 여기서 ‘킬킬’은 ‘낄낄’보다 거센 어감을 가진다.

5) ‘팔팔’과 ‘칼팔’은 액체가 급격하게 흘러내릴 때 나타내며, 그 중 ‘칼팔’이 ‘팔팔’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6) ‘줄렁줄렁’과 ‘출렁출렁’은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는 소리 혹은 그런 모양을 표현한다. 여기서 ‘출렁출렁’은 ‘줄렁줄렁’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따라서, 자음의 가세 변화를 통해 어감의 강도가 변화되며, 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들 사이에서도 가세적 차이를 통해 감각적 변화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고할미> 원문의 의성어·의태어는 대부분이 전체 반복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반복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 <표 4>는 원문에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전체반복을 통한 의성어·의태어이다.

<표 4> 원문에 나온 의성어·의태어와 반복을 통한 의성어·의태어

		원문	반복	
7	성큼 성큼	“다리를 <u>잇따라</u>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	성큼	“다리를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
8	드르렁	“매우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	드르렁 드르렁	“매우 요란하게 <u>자꾸</u> 울리는 소리.”
9	출렁 출렁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출렁	“물 따위가 큰 물결을 이루며 <u>한 번</u>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 '성큼'은 다리를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을 지칭한다. 반면 '성큼성큼'은 다리를 연속적으로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을 묘사한다.

8) '드르렁'은 매우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를 나타내고, '드르렁드르렁'은 요란하게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를 표현한다.

9) '출렁'은 물이 큰 물결을 이루며 한 번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을 묘사한다. 그에 반해 '출렁출렁'은 물이 큰 물결을 이루며 계속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런 모양을 묘사한다.

의성어·의태어에서의 전체 반복 형태는 강조나 연속성 또는 어떠한 행동의 지속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이곤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국어는 더욱 생동감 있고 깊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전체 문장이나 문단이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된다.

3.2. <마고할미>에 드러난 문화적 요소

본 장에서는 <마고할미> 설화에서 여성신의 변모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위상 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마고할미>는 여신의 창세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 한국 창세신화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구전되는 설화의 특성상 가변성이 수반된다. 따라서 <마고할미>의 인식도 여러 단계를 거쳐 많은 변모를 겪어왔는데 이는 여성의 위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태효(2002)의 거인설화의 변화 단계²¹⁾를 기초로 하여, <마고할미>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성성을 변모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위상 변화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찰을 다뤘다.

권태효(2002)에서는 “거인설화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가. 신화로서의 신성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던 단계
- 나. 주술적 신성성이 의심받던 단계
- 다.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희화화되던 단계

21) 권태효(2002:205-206), 『한국의 거인설화』.

라. 새로운 변이형으로 변모하거나 변이형을 형성하는 단계

가) 신화로서의 신성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던 단계는 거인창조신화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²²⁾

나) 단계는 주술적 신성성이 의심받는 시기로, 신화적인 행위를 행하지만, 신성성이 상대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단계이다. <마고할미>는 여기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 신성성이 떨어진다. 인간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드르렁 코를 골면서 긴 잠을 자고 있었다.
- 2) 잠에서 깨 기지개를 켜다.
- 3) 한라산을 베고 벌렁 드러누웠다.
- 4) 땅을 손가락으로 죽죽 긁었다.
- 5) 한숨을 쉰다.
- 6) 배가 고파진 마고할미는 흙, 나무, 바위 등을 가리지 않고 집어 삼켰다.

이처럼, 마고할미는 산천이나 지형을 창조하는 창조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드르렁 코를 골면서 긴 잠을 자고 있었다’이런 행동으로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생활 습관을 보여주며, 이런 평범함이 마고할미의 신성한 면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간적인 행동이 마고할미의 신성성에 대한 의심을 부르며, 이를 통해 마고할미의 신격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다) 단계에서는 신성성이 살아지면서 희화화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신성성이 일정 부분 유지되지만, 창조신의 성질은 대체로 약화된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의 모습과 희화화된 표현을 통해 거인에 대한 흥미를 끈다. <마고할미>의 희화화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 7) 마고할미가 킁킁 웃으면서 팔팔팔 오줌을 누었다.
- 8) 탈이 난 마고할미는 입에서 토해낸 것이 백두산이 되고, 뒤에서 쏟아낸 것이 태백산이 된다.

22) 권태효(2002:206)에서는 전승되는 구전문자료는 신성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 많은 변모가 개입된 형태에서 신화로서의 절대적인 신성성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반고신화에 나타난 거인신적 면모는 이런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마고할미의 희화화는 배설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드러난다. 비록 부정적인 특성은 부각되지 않지만, 배설 행위를 통해 '오줌 줄기가 강물처럼 밀려와 사람들은 독을 씹고, 마고할미는 돕기 위해 성큼성큼 바다를 건너 독을 씹었다'는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흥미 위주의 희화화된 모습은 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새로운 변이형태를 형성하거나 변이형태로 변모하는 단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화 <마고할미>는 부부 거인신 마고할미와 마고할으범을 등장시킨다. 마고할으범은 마고할미의 남편으로서 나타나며, 이는 이야기를 더 흥미롭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²³⁾

<마고할미> 계통의 <갱구할머니>에서 갱구할머니가 창조여신의 이미지를 가지나 마고할미와는 차이가 있다. 갱구할머니는 옷을 입는 것이 소원이며, 왕에게 간절히 옷을 부탁하였고, 결국 입게 된 옷이 인간의 생활에 위협을 끼친다는 점이 그 차이이다. <죽도 마귀할머니>에서는 여신이 하늘의 물건을 훔쳐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마고할미가 이미 신성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탐욕에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조현설(2013)에서는 <마고할미>의 신성성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초라한 모습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것은 여성 중심의 문화에서 남성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면서 여신의 위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마고할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신성한 창조신에서 평범한 인간, 그리고 희화화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원래 신성한 창조신이었던 마고할미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마고할미의 신성한 특성은 감소하고, 일반적인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모습이 강조되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마고할미를 희화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3) 권태효(2010:243)에서는 남자 거인은 여자 거인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로, 여자 거인과 쌍을 이루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의 존재 없이도 이야기의 진행에 큰 지장이 없다. '할미'라는 이름을 따르는 남자 거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여자 거인과 별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은 존재이다. 그저 부차적으로 설정된 모습을 드러낸다.

둘째, 여성 거인신에서 부부 거인신으로 변화하였다. 원래는 독립적인 여성 거인신이었던 마고할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거인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설화를 흥미롭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남성 거인이 추가되어 새로운 부부 거인신의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셋째, 인간을 생각하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변화하였다. 원래는 인간을 돕는 선신이었던 마고할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신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부계적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여신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여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로의 변화는 설화에서도 명확하게 반영되며, 이는 민간에서의 여성에 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설화에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3. <마고할미>와 <반고>의 상호문화교육

반고는 중국 설화 중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거인 신이다. 우주의 창조신이자 천지창조의 신이다. <반고>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 서정(徐整)이 지은 삼오역기(三五歷記)와 오운역년기(五運歷年記)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삼오역기에서는 천지가 혼돈의 상태에서 창조되는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며, 오운역년기는 반고의 죽음과 그로 인한 자연현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창세신화를 비교하여 고찰하고 적절한 양질의 교육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 능력을 제고하겠다. <반고(盘古)>의 원문은 문어문 기록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盘古开天地(반고개천지)>를 사용하였다. <盘古开天地(반고개천지)>는 학습자들이 이미 익숙한 내용이며, 비교적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접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창세신화 사이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초등학교 4학년 어문교재²⁴⁾에 따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을 때, 우주는 혼을 상태이며, 반고라는 거인은 혼돈 속에서 18000년 동안 자고 있었다.
- 2) 반고는 깨어나 도끼를 휘둘러 어둠을 자르자, 하늘과 땅이 나타났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18000년 동안 받치고 있었다.
- 3) 하늘은 매일 1장씩 높아지며 땅은 매일 1장씩 두꺼워지고 반고는 매일 1장씩 자랐다.
- 4) 반고는 결국 힘들어 쓰러졌다.
- 5) 반고가 죽은 후, 그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 목소리는 천둥, 왼쪽 눈은 해, 오른쪽 눈은 달, 팔다리와 몸통은 사극과 오악, 피는 하천, 숨털은 나무와 화초, 땀은 비와 이슬로 변했다.
- 6) 반고는 자기 몸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였다.

다음 <표 5>는 <마고할미>와 <반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표 5> <마고할미>와 <반고>의 비교

비교내용	마고할미	반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붙어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여 어둠 속을 기어 다녔다. 마고할미는 기지개를 쳐자 하늘이 밀려 올라갔다.	도끼를 휘둘러 어둠을 자르자, 하늘과 땅이 나타났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었다.
잠	코를 골면서 긴 잠을 자고 있었다.	계란 안에서 18000년 동안 자다가 깬다.
인간	인간과 관한 내용이 있다.	인간과 관한 내용이 없다.
죽음	죽음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고는 오래 살았지만 결국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다.

24) 教育部组织(2019:48-49 『语文(四年级, 上册)』人民教育出版社.

비교내용	마고할미	반고
지형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을 손가락으로 긁어 골짜기와 산이 되다. · 한숨을 내쉬자 산과 언덕이 날아가 별판이 생겼다. · 입으로 토해 낸 것 백두산 뒤로 쏟아 낸 것 태백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하천 · 팔다리와 몸통 - 사극과 오악
자연창조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결-바람 구름 · 목소리 -천둥 · 숨털-나무와 화초 · 땀-비와 이슬 · 왼쪽 눈- 해 · 오른쪽 눈- 달
성별	여신	남신
외모	거인	거인
모습	희화화한 모습	자기희생 모습

<마고할미>와 <반고>의 설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분리, 수면에서 깨어남, 지형 창조, 거인의 모습이 주요 공통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통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문화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가진 학습자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활용하여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 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고할미>와 <반고>의 차이점에서는 세계창조 방식, 죽음, 성별 등이 있다. 한국과 중국 두 문화 간의 죽음에 대한 이해,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 성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에서 두 설화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고할미>에서는 마고할미가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창조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창조 방식을 보여준다. 그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

해 지형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점은 시간이 지나며 구전되어온 창조신화의 신화적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²⁵⁾ 반면, 〈반고〉에서는 반고가 도끼를 사용해 세계를 창조하며, 심지어 그의 몸을 희생하여 지형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반고의 신성성인 성격을 강조하며, 신의 높은 힘과 희생을 통해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죽음과 관련된 차이점이 드러난다. 〈마고할미〉의 설화에서는 마고할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반고는 죽음을 통해 세계의 여러 부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각지의 신화를 보면, 지형이나 산맥의 생성이 대개는 거인의 유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단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신은 죽는다는 관념이 없다.²⁶⁾ 이는 각각의 문화에서 죽음과 관련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

셋째, 성별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마고할미〉는 지형창조에 초점을 두고 다루었다. 박용진(2015)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은 남성과 연결하고 땅은 여성과 연결해 왔다고 하였다. 남신은 천지개벽이나 일월 조정하는데 비해 여성은 자연과 산천을 세상의 일부로 조정하거나 지형 형성을 담당한다.²⁷⁾ 한국의 우주 형성과 지형창조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 반고는 남성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심각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25) 권태효(2010:13)에서는 대다수의 거인 설화는 일반인들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구비 전승되어, 이러한 구전의 전승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한다. 제의적 기반도 부족하며, 장기간에 걸쳐 구전 전승된 결과로 거인 설화에서의 창조신화적 특성은 크게 약화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신성한 측면이 대부분 소실되고, 설화의 진정성조차도 의심받는 케이스가 많다. 즉, 거인 설화는 희화화되거나 현실화하는 경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6) 권태효(2010:87)에서는 四肢五體가 산이 되고, 혈액이 강이 되고, 근육은 지형이 되고, 살갗은 토지가 된 반고신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인의 死體化生神話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는 신은 죽는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 권태효(2010:40)에서는 마고할미에 의한 창조는 한국 신화에서 미륵이나 천지왕과 같은 남성 신들이 수행하는 창조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남성 신들은 천지를 나누거나 해와 달을 정돈하는 등의 초창기 창조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마고할미는 초기 창조 이후, 자연과 산들을 세계의 일부로 조화롭게 배열하거나 특정 지역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는 두 번째 단계의 창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창조가 남성 신과 여성 신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은 한국 창조 신화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설화가 그 문화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창조, 죽음, 성별과 같은 주제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각 문화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마고할미>와 <반고>의 설화는 각각의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로 작용한다. 두 대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두 문화가 각자의 설화를 통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4.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법 제시

<마고할미>를 활용한 교육 방안은 총 두 번의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차시 수업에서는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의 교육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의성어·의태어의 사용과 그 특징을 이해하게 할 예정이다. 2차시 수업에서는 <마고할미> 설화를 중심으로 여성의 위상 변화와 중국의 창세신화 <반고>와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여성신의 역할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4.1.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1차시 수업에서는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의성어·의태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해 과제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겠다. 고산 외(2017)에서 제시한 과제 중심 교수법은 학습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제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과 상호행위가 수반되고 학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 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중심 교수법을 과제 전, 과제 수행 중, 과제 후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과제 전 단계에서는 교사는 주제를 도입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도록 예를 보여 준다. 학생들이 수행 방법을 모색한다. 과제 수행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목표 언어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후 단계에서는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언어 표현을 익힌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의성어·의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가므로 언어 숙달도도 배양할 수 있다. <표 6>은 <마고할미>를 활용하여 중국인 고급 단계 의성어·의태어 수업의 교육 방안이다.

<표 6>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방안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온 의성어·의태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 의성어·의태어를 모음교체, 자음교체, 반복을 통해 확장한다. · 의성어·의태어를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수-학습 방법		과제 중심 교수법
학습 자료		<마고할미> 동영상, 작품 전문, PPT
과제 전	도입 및 동기 유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고할미> 동영상으로 한국의 창세신화에 대해 흥미를 이끌고 관심을 유도하기 2. 교사는 의성어·의태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기 3. 의성어·의태어의 모음교체, 자음교체, 반복의 특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4. 과제 활동 소개 및 과제 제시
과제 수행	활동 및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그룹을 나누어 조별 활동 2. 소그룹 내에서 작품을 낭독하면서 의성어·의태어 찾기 3. 소그룹 내에서 찾은 의성어·의태어와 유사한 의성어·의태어를 생각하기 4. 찾거나 생각한 의성어·의태어를 모음교체, 자음교체, 반복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소그룹에서 의미를 추측하기 5. 발표내용 연습하기
과제 후	과제 결과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그룹 발표 2. 교사는 발표내용에 대해 평가하기

과제 후	마무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간략하게 의성어·의태어의 특징, 상용효과에 대해 정리하기 2. <마고할미>라는 여성신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다음 수업에 대해 언급하기
	숙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그룹에서 <마고할미>의 희화화된 모습을 찾고 왜 희화화하게 표현하였는가를 생각해보기 2. 중국 창세신화 <반고>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기

1차시 수업 <마고할미>를 활용한 의성어·의태어 교육방안을 크게 과제 전, 과제 수행, 과제 후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과제 전 단계는 도입 및 동기 유발단계로 학습자들은 <마고할미>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사의 시범을 통해 의성어·의태어가 시제 언어 사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동영상과 교사의 예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언어적 요소들이 전달하려는 감각과 느낌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었다.

과제 수행 단계는 활동 및 분석단계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성어·의태어의 교체와 반복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그룹 활동, 상호 작용이 포함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과제 후 단계과제 결과확인과 마무리 단계로 그룹에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사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마무리로 교사의 지도 아래 이번 수업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복습하며 <마고할미>에 대한 간략한 소기를 통해 다음 수업에 대한 흥미로 유도한다. 숙제로는 학습자들이 <마고할미>의 희화화된 모습을 찾고 이에 대해 고민해 보며 중국 창세신화 <반고>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이 수업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성어·의태어의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언어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언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4.2. 여성신의 변화 및 <반고>와의 비교 교육 방안

2차시 수업에서는 <마고할미> 설화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위상 변화와 중국 창세신화 <반고>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차시 수업에서도 과제 중심 교수법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직접 설화를 분석하고, 여성신의 변모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는 것과 <반고>와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7>은 <마고할미>와 <반고>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이다.

<표 7> <마고할미>와 <반고>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고할미>를 통해 여성의 위상 변화를 알아본다. · <마고할미>와 <반고>를 비교를 통한 한국과 중국 문화 특성을 이해한다. ·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과제 중심 교수법
학습자료		작품 전문, <반고> 줄거리, ppt
과제 전	도입 및 동기 유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마고할미>는 시대적 변화 관련 설명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2. 과제 활동 소개 및 과제 제시
과제 수행	활동 및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차시 숙제인, <마고할미>의 희화화한 모습의 분석과 <마고할미>와 <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하기 2.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그룹을 통한 여성의 위상 변화 및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3. 교사는 <마고할미> 기타 계통의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하기 및 토론 지도를 하기 4. 발표내용 연습하기
과제 후	과제 결과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그룹 발표 후 교사는 피드백 제공하기 2. 상호 평가 및 자기 평가로 목표 달성 점검하기

과제 후	마무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여성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설화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하기 2. 한·중 설화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을 강조하기
------	-----	--

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는 <마고할미>와 <반고> 설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1차시 수업과 동일하게 과제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여 교육방안은 과제 전, 과제 수행, 과제 후 단계로 구성한다.

과제 전 단계는 도입 및 동기 유발단계로 이 단계에서 교사는 <마고할미>의 시대적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설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의 변모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과제 수행 단계는 활동 및 분석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전 차시 과제인 <마고할미>의 모습과 <반고>와의 비교 분석하는 결과를 발표한다. 각 그룹에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고할미의 희화화한 분석과 차이점에 대해 보완 수정 작업을 한다. 교사는 <마고할미>의 기타 계통의 줄거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토론을 촉진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의 방향과 질을 관리하여 학습 목표의 달성을 보장한다.

과제 후 단계과제 결과확인과 마무리 단계로 각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발표하고, 교사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내용을 강화한다.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수업을 정리하며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종합한다. 이때, <마고할미>에서 나타난 여성의 위상 변화가 설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교육 방안을 통해 학습자들은 <마고할미>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반고>와 비교를 통해 문화 간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화 〈마고할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마고할미〉는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마고할미〉와 〈반고〉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상호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교육 방안을 모음 교체, 자음 교체, 반복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언어적 요소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마고할미〉는 한국의 창세신화 중 하나로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설화 속의 여성신의 변모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호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설화 〈마고할미〉와 중국의 설화 〈반고〉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런 비교는 양국의 문화 이해와 상호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이 연구가 주로 문헌 연구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언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성이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나 실험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논문의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거나 다루는 것은 이 연구 주제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1993).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3-47쪽.
 고산 외(2017). 과제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담화표지 '그냥'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인문사회〉 21, 27-37쪽.

- 고영진(2009). 음양오생설의 언어이론 가능성 모색, <한민족문화연구> 29, 22-60쪽.
- 구선희 외(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방안 연구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19(3), 1-20쪽.
- 권태효(2002). 한국의 거인설화, 도서출판 역락.
- 권태효(2010).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223-260쪽.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출판사.
- 김승희(2016). 한국어교사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한문족문화연구> 55, 271-304쪽.
- 김재욱 외(2010). 한국어교수법, 형설출판사.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박동근(2019).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음운 비교, <한말연구> 37, 177-203쪽.
- 박용진(2015). 한국 창세신화(創世神話)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8, 18-41쪽.
- 박현숙(2012). 설화 구연 전통에 기반한 옛이야기 들려주기 방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도용(2013).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우리말연구> 32, 159-184쪽.
- 신선희(2009). 구비설화 다시쓰기와 새로운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29, 1-35쪽.
- 신정아(2020). 비교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중 「혹부리 영감」설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95, 271-301쪽.
- 안미영(2008).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연구> 31(4), 107-130쪽.
- 양지선(2009). 단군신화를 활용한 한국어와 문화교육, <고향논집> 44, 11-32쪽.
- 이은자(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군신화>의 교육 방향, <문화와 융합> 39(4), 258-312쪽.
- 이은희(2016). 바라공주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어문논집> 68, 327-357쪽.
- 임재해(1998). 설화의 상상력과 민족적 창조력, <한민족어문화> 33, 315-361쪽.
- 장학련(2012). 「中國人學習者를 爲한 韓國語 擬聲語·擬態語 教育研究」, 釜山外國語大學 學校, 박사학위논문.
- 정기범 외(2022). 초등학교 음악5, 미래엔.
- 정송희(2022). 설화 문학을 활용한 고급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방법 연구, <어문학보> 42, 47-95쪽.
- 정인승(1986). 모음 상대 법칙과 자음 가세 법칙, <한글> 191, 195-212쪽.
- 조현설(2013). 마고할미신화연구, 민속원.
- 차이후이(2014). 서사무가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청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춘(2013).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4), 101-135쪽.
- 教育部组织(2019). 语文(四年级, 上册), 人民教育出版社.
- 赵绒绒(2020). 《现代汉语词典》(第7版) 中的拟声词, 〈陇东学院学报〉 31(1), 1-5页.
- 『現代漢語詞典』(第6版)(2014).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2014.
- Holzbrecher. A.(2004). *Interkulturelle Padagogik*, Berlin: Cornelsen Scriptor.

필자 소개

성 명 고연희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생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길 65
전자우편 gyx285677815@gmail.com

Abstract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rategies Utilizing the Folk Tale “Mago Halme” - Focusing on Advanced Chinese Learners -

Gao Yanx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paper we examined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using the folktale “Mago Halmi” for Chinese advanced-level learners. Folktales are an important tool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ffering foreign learners insight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Korean folktale “Mago Halmi” is a female giant who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 goddess of the Earth, she is responsible for forming the initial terrain. This folktale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to research Korean female cultur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Mago Halmi” can be examined from linguistic, cultural, and intercultural perspectives.

Firstly,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effective methods of learning Korean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he use of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in Chinese are not as distinct, causing Chinese learners to face challenges when acquiring them in Korean.

Secondly, from a cultural viewpoint, “Mago Halmi” deals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goddess figure and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in society. It is rare for Korean folktales to feature an independent goddess figure. “Mago Halmi” provides detailed and abundant information about the world creation by the goddess, offering important clues for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women’s status in Korean society.

Lastly, through an intercultural approach, comparisons can be made

between the Korean folktale “Mago Halmi” and the Chinese folktale “Pangu”. By doing so, learners can improv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and coexist with various cultures while respecting cultural differences.

|Key words| Folktale, Mago Halmi, Pangu,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투고일 2023. 10. 10 / 심사일 2023. 11. 07 / 게재확정일 2023. 11. 14